

호랑이 가을잔치 92둥이에게 물어봐



김호령

이민우·문경찬·박준표·김호령 등 92년생 동갑내기들 팀 핵심 전력 KIA 1군 엔트리 6자리 차지

문경찬·박준표 등 막강 필승조 활약 김호령, 홈런으로 화려한 복귀 신고 아낌없는 격려·박수로 팀워크 상승

'92둥기'들에게 KIA 타이거즈의 '가을 잔치'를 묻는다. KIA에는 '92둥기'들이 많다. 지난 2일 부상에서 벗어난 김호령이 1군에 합류하면서 1군 엔트리 6자리를 '92둥기'들이 차지하고 있다. 박준표를 중심으로 유독 사이가 좋은 친구들은 올 시즌 팀 성적을 쥐고 있는 주요 전력이기도 하다. 특히 마운드는 92들이 중심을 잡고 있다. 올 시즌 초반 성적으로는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이민우를 시작으로 박준표가 막강 필승조, 문경찬이 득직한 마무리로 활약하면서 승리를 합작하고 있다.

KIA에는 귀한 좌완에도 92가 있다. 불펜의 유일한 좌완 김경찬과 좌측 내전군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또 다른 좌완 이준영도 '92둥기'다.

추격조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홍건희까지 더하면 '92둥기'들이 마운드를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유일한 야수 김호령까지 시즌을 시작하면서 공·수에서 '92둥기'들의 역할이 커져가 됐다.

2017시즌을 끝으로 경찰청에서 군복무를 한 김호령은 지난 가을 제대했지만 끝반 통증으로 복귀전을 치르지 못했다. 이어 스프링캠프에 앞서 손가락 부상을 입었고,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던 연습경기에서는 끝반 부상이 재발했다.



이민우

김호령은 "1군 올라왔을 때 친구들이 잘 왔다 반겨주고 이야기도 많이 해줬다"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잘되는 것 같다"고 친구들의 힘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의 환영 속에 뒤늦게 시즌을 시작한 김호령은 복귀전에서 화려한 한방을 선보이면서 동기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지난 2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풀업과 함께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김호령은 첫 타석 조구에 방망이를 휘둘렀다.

박세웅의 145km 직구를 공략한 김호령은 그대로 좌중간 담장을 넘기면서 시즌 3호, 통산 54호 1회말 선두타자 초구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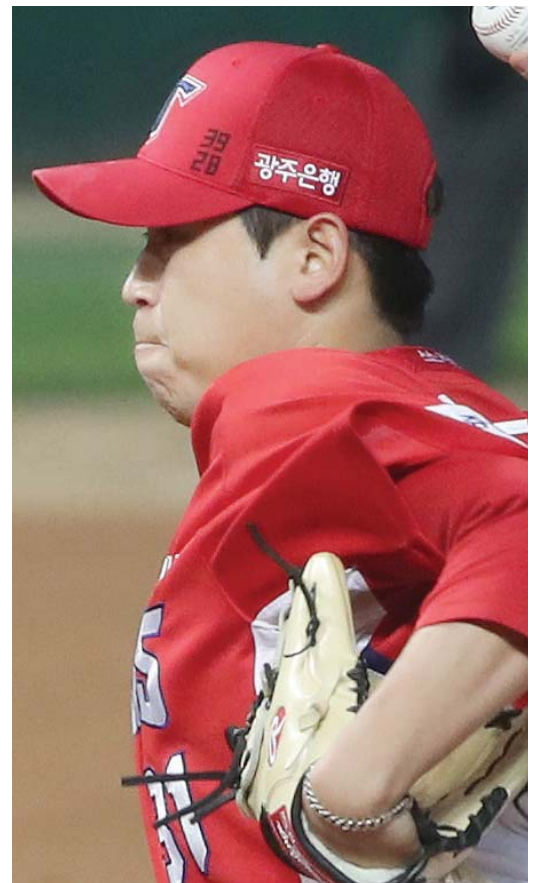


문경찬

이후 연속 삼진 뒤 4번째 타석에서는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윌리엄스 감독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경기였다.

윌리엄스 감독은 "처음 타석 들어가서 처음 본 공을 잘 맞혀서 홈런을 만들었다"며 "다음 타석에서 헛스윙도 나오기는 했지만 타석에서도 그렇고 수비도 좋았다. 수비 때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좋은 플레이도 보여줬다. 만족스럽다"고 김호령의 복귀전을 평가했다.

김호령도 "오랜만에 1군에 올라와서 많이 떨렸는데 첫 타석에 좋은 결과 나와서 긴장이 풀렸다. 좋은 하루였던 것 같다"고 잊지 못할 첫날을 이야기했다. 김호령의 수비실력은 KBO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박준표

특급이다. 여기에 연습경기에서부터 달라진 타격과 힘을 보여주면서 수비는 물론 공격에도 기대감이 커졌다.

92둥기들에게는 친구로서는 물론 투수로서도 반가운 김호령의 합류다.

박준표는 "호령이가 오면서 수비가 더 든든해졌다. 수비 믿고 편하게 던지겠다"며 "우리끼리 정말 사이가 좋다. 시즌 전부터 서로 격려하면서 준비 잘했고, 시즌 잘 보내고 있다. 야구 잘해서 우승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친구들과 좋은 모습 보이면서 우승하는데 역할을 하겠다. 자신 있게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5타점' 유민상 "최형우 저리가라 였다"

▲저도 놀랐어요 = 선두타자 초구홈런에 보는 사람도 친 사람도 놀랐다. 지난 2일 롯데 홈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른 김호령은 첫 타석에서 초구에 홈런을 만들었다. "저도 놀랐어요. 치고도 넘어갈 줄 몰랐다"라며 웃은 김호령은 "초구를 볼까했는데 괜히 스트라이크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초구부터 치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또 "(뜰타자로 나가서) 부담스러웠는데 즐기자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하려고 했다"며 "2군에서 정성훈 코치님하고 타격폼이랑 투수와 승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했다. 예전에는 찍어줬다면 지금은 올려치는 것으로 바꿨

다. 아직 변화구 대처에 미숙한데 그걸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형우 저리 가라더라고요 = 낯설 좋은 유민상의 특별한 소감이었다. 유민상은 2일 롯데전에서 4안타 5타점의 활약으로 7-2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세 번째 타석에서는 박세웅을 상대로 스리런도 기록했다. 승부의 추를 기울인 비거리 139m의 대형 홈런. 경기 후 인터뷰에서 비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유민상은 "시커멓게 날아가더라. 최형우 저리가라였다"고 말해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이

어 "형우 형 방방이로 홈런을 쳤다. 못 친다고 하나 했는데 요즘 너무 잘 친다고 뻗었다고 하더라"고 말해 다시 한번 사람들을 웃겼다. 유민상은 "최근에감이 좋았다. 앞선 두 타석에서도 안타를 쳤고 자신감 충만한 상태로 타석에 들어갔다"며 "주자 2·3루였으니까 강하게 외야 플라이를 치자는 생각으로 배트를 들었는데 공이 물려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유민상은 이날 네 번째 타석에서도 적시타를 기록하며 자신의 한 경기 최다 타점 기록을 5점으로 늘렸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 타이거즈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인 윌리엄스 감독. 그는 선수들이 스스로 믿고 다가가도록 행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배팅볼 던져주고, 평고 쳐주고, 수비 때 옆에서 공을 잡아주는 등 선수들과 가까워지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다가가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가장 스스로 믿고 다가는 선수로는 박찬호를 꼽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박찬호가 굿 애프터눈이 라든지 매일 영어 문장을 써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의견을 표현하려고 한다. 또 라커룸에서 한국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선수들이 영어로 다가가 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라커룸에 가면 나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선수들은 굿모닝이라고 한

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기습변트 시도하겠다 = 2일 경기까지 전상현은 11경기에서 1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미스터 제로'로 통한다. 지난 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7이닝 무실점. 윌리엄스 감독은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한다. 직구도 좋고 유인구, 변화구도 스트라이크존에 날을 수 있다. 유인구로 헛스윙을 유도할 수도 있다"며 전상현에 대해 평가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타자로 만나면 어떻게 승부하겠나"는 질문에는 "기습변트를 시도하겠다"고 답해 사람들을 웃겼다. 이어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코너워크가 좋다. '0'의 평균자책점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배구여제' 김연경, 국내 복귀 초읽기

홍국생명 첫 협상... "생각할 시간 달라"

한국 복귀를 타진하는 김연경(32)이 3일 원 소속 구단인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과 공식으로 만나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여울 흥국생명 단장과 김연경은 이날 처음으로 복귀 협상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다. 흥국생명 구단 관계자는 "좋은 대화를 나눴고, 김연경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의도치 않게 언론 보도로 국내 복귀 타진이 알려진 상황이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김연경의 입장이다. 김연경은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흥국생명에 요청했고, 흥국생명도 그렇게 하겠다며 첫 만남을 마무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계속 뛰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김연경의 국내 복귀 타진설은 다음 시즌 여자 프로배구 판도와 인기엔 큰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흥국생명은 "(국내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기에 김연경 측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릴 참"이라고 했다. 다음 시즌 선수 등록 마감 기한은 30일 오후 6시다. 김연경이 복귀 결단을 내리면 흥국생명은 절차

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013년 7월 이사회를 열어 해외에 진출한 김연경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임의탈퇴 신분이라며 국내 리그로 돌아올 경우 흥국생명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4년을 뒀 뒤 임대 선수 자격으로 일본, 터키에서 뛰었다. FA 자격을 취득하려면 흥국생명에서 2년을 더 뛰어야 한다. 배구연맹 규정을 보면, 임의탈퇴 선수는 임의탈퇴로 공시된 뒤 1개월 후 탈퇴 당시 소속구단으로 복귀하면 된다. 김연경의 몸값을 어떻게 책정하고, 셀러리캡(연봉총상한제·23억원) 범위에서 다른 선수들의 연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흥국생명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재영과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이미 10억원을 가져간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김연경에게 쓸 수 있는 최대 액수는 연봉과 옵션 포함 6억5000만원이다. 나머지 6억5000만원으로 다른 14명의 연봉을 해결해야 한다. 세계적인 레프트 김연경이 가세한다고 해도 4일 열리는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선발 전략이 바



김연경

꾸진 않을 것이라고 흥국생명은 소개했다. /연합뉴스

강정호, 내일 귀국...사과는 2주 뒤

2주간 자가격리

국내 프로야구 복귀를 추진하는 강정호(32)가 5일 귀국한다. 강정호의 에이전트인 리코 스포츠는 강정호가 5일 입국해 감염병 검역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3일 전했다. 강정호의 복귀는 그의 보류권을 보유한 키움 히어로즈에 달렸다. 성년 여론을 접한 키움 구단은 "강정호의 기자회견 이후 무언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광주 연패 끊은 엄원상 '주간 베스트 11'

K리그1 4라운드

광주FC의 연패를 끊은 엄원상이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0 K리그1 4라운드 경기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놀라운 스피드를 과시하며 득점에 성공한 '엄살라' 엄원상이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부상으로 재할을 해왔던 엄원상은 지난 5월 30일 울산 현대와의 홈경기를 통해 복귀전을 치렀고, 시즌 개시 11분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엄원상의 첫 골이자 4경기 만에 나온 광주의 시즌

첫 골이었다. 광주는 자책골로 아쉽게 1-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엄원상의 골로 3연패에서 벗어나 시즌 첫 승점을 기록했다. 4라운드 MVP는 포항스틸러스의 일류첸코에게 돌아갔다. 일류첸코는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1 대승을 이끌었다. 일류첸코를 앞세운 포항은 4라운드 베스트팀이 됐다. 베스트매치에도 포항과 인천의 경기가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

